

##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관계\*

이 해 균\*\*

대구대학교 특수교육과

### 《요 약》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지도 자료를 제공하고자 전국맹학교 중·고등부 시각장애학생 26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적응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행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은 사회 관련 스트레스, 학교 관련 스트레스, 본인 관련 스트레스, 가족 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기숙사 학생이 자택 학생보다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었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 생활 적응, 학교 교사 적응, 학교 환경 적응, 학교 친구 적응, 학교 수업 적응 순으로 높으며,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며,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자택 학생이 기숙사 학생보다 학교 환경 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시각장애학생, 스트레스, 학교적응

## 1. 서 론

### 1. 연구의 의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데 필요한 태도, 가치, 사고 및 행동의 방식을 습득하게 된다. 특히 중·고등학생의 시기에 해당하는 청소년기는 아동과 성인의 과도기로서 인지와 자아정체성 발달, 신체적 성숙 등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생활에 대한 통제력도 갖기 어려운 시기이다. 이때는 부모에게 점차 의존하려는 태도나 행동에서 벗어나 친구나 학교 그리고 그 밖의 사회적인 환경과의 접촉이 많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 교신저자(gyunlee@daegu.ac.kr)

청소년기는 발달·심리적인 특성으로 볼 때, 다양한 도전적인 과제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혼란스럽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시기이다. 따라서 청소년은 그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감, 신경성 질병, 우울감 등을 호소하고 있다. 더군다나 이러한 상태가 심해지면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데 청소년 문제의 상당 부분이 스트레스가 원인(이경희, 1995)이라고 한다.

이처럼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나게 됨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높으며, 또한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청소년이 대처하기 힘든 급변하는 환경과 치열한 경쟁 등의 결과로 반항, 좌절, 탈선, 학교 부적응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 또한 오늘날의 청소년에게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각장애학생의 사회성 발달은 일반학생의 사회성 발달과는 다르다(Warren, 1984)는 점에서 시각장애학생의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 또한 일반학생과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는 시각장애학생은 시각의 손상으로 인하여 다양한 제한성을 갖게 되어 일반학생과 다른 스트레스 요인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각장애학생은 성장과정에서 일반학생과 다른 경험을 하게 되고 이에 따른 다른 적응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생기는 스트레스는 가정이나 학교생활 등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청소년은 그들의 삶 속에서 일찍이 겪은 스트레스와 장애를 긍정적이고 성장과 강화 수단으로 극복하는 것을 배운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이경희, 1995). 이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정서적, 행동적인 학교적응에 장애를 일으키지만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학교적응 능력은 개인마다 다르다(한준상, 1995). 따라서 학교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우선 중요한 과제는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 부적응 요인을 분석하여 그 원인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교육 현장의 절실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 있다. 그러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춘희(2000)와 정복순(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길자(2004)와 이수경(2005),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진화(2003)와 고등학교 기숙사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진(2001)연구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지금까지 이 분야에서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다수가 있으나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된 바 없다. 따라서 일반학교와는 달리 시각장애학교는 기숙사가 있어 학창시절의 거의 모든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야 하는 시각장애학생은 일반학생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에 따른 학교적응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각장애학생이 겪게 되는 스트레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생활의 적응을 향상 시켜 줌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이 건강한 삶을 살아 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을 조사하여 집단 간의 특성에 따라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스트레스에 따라 학교적응에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봄으로써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관계를 이해하고 적절한 지도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기초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시각장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여 이들이 스트레스를 적절히 대처해 나가고 학교생활에 대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도와 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들의 성별, 학교급별,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시각장애 정도별, 거주 형태별 등의 배경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의 정도와 학교적응의 차이를 구명하는데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밝힌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차이를 밝힌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밝힌다.

넷째,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차이를 밝힌다.

다섯째,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상관관계를 밝힌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전국 12개 맹학교에 재학 중인 중복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한 단순 시각장애 중·고등학생 중에서 무선 표집하여 26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청소년기가 신체적으로 가장 큰 변화가 이루어지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민감하게 현실과 이상에서 심적 갈등을 체험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을 조사하기에 적절한 대상이라 생각되어 선정하였다.

이들의 배경 변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 표 II.1과 같다.

<표 II.1>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별 분포 단위: 명(%)

성별		학교급별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시각장애 정도별		거주 형태별		계
남	여	중학생	고등학생	선천성	후천성	맹	저시력	기숙사	자택	
155 (59.2)	107 (40.8)	95 (36.3)	167 (63.7)	149 (56.9)	113 (43.1)	113 (43.1)	149 (56.9)	155 (59.2)	107 (40.8)	262 (100)

표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별 연구 대상의 분포는 남학생이 155명, 여학생이 107명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이 95명, 고등학생이 167명이었다.

시각장애 발생 시기는 선천성과 후천성으로 분류하여 본 연구에서는 3~4세 정도에서의 실명은 시각 표상이 남아 있지 않다고 보아(김동연, 1991), 이를 바탕으로 5세 이전의 시각장애를 선천성, 5세 이후의 시각장애를 후천성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149명,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113명이었다.

시각장애 정도는 맹과 저시력으로 구분하여 본 연구에서 맹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미만이거나 시야가 20도 이하인 학생을, 저시력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05 이상 0.3 미만인 학생으로서 점자로 학습하더라도 시력을 이용한 독립보행이 가능한 경우까지를 포함했다(국립특수교육원, 1999). 따라서 맹학생이 113명, 저시력학생이 149명이었다. 그리고 거주 형태별로는 기숙사 거주학생이 155명, 자택 거주학생이 107명이었다.

## 2.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검사 도구는 ‘스트레스 검사’와 ‘학교적응 척도’로써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스트레스 검사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지는 박순영(1998)이 개발한 것을 시각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은 가족 관련, 학교 관련, 친구 관련, 본인 관련, 사회 관련 스트레스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문항을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스트레스 받는 정도에 따라 ‘매우 심함’ 5점부터 ‘전혀 없음’ 1점까지 5단계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스트레스 검사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가족 관계 스트레스’와 같은 신뢰도는 .654로 다소 낮은 영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896으로 높은 편이었다. 스트레스 검사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II.2와 같다.

<표 II.2> 스트레스 검사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가족 관련 스트레스	6	1, 2, 3, 4, 5, 6,	.654
학교 관련 스트레스	6	7, 8, 9, 10, 11, 12,	.684
친구 관련 스트레스	6	13, 14, 15, 16, 17, 18,	.681
본인 관련 스트레스	6	19, 20, 21, 22, 23, 24,	.704
사회 관련 스트레스	6	25, 26, 27, 28, 29, 30	.772
전 체	30		.896

### 2) 학교적응 척도

학교적응 척도는 김용래(1993)가 개발한 것을 시각장애학생에게 적절하게 재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적응 척도의 하위영역은 학교 환경, 학교 교사, 학교 수업, 학교 친구, 학교 생활 적응 등 5개 영역으로 나누고,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부적절한 문항을 삭제하고 필요한 문항을 본 연구자가 개발하여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문항은 학교적응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까지 5단계 평정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의 학교적응 척도의 신뢰도(Cronbach  $\alpha$ )는 ‘학교 수업 적응’과 같은 신뢰도는 .585로 다소 낮은 영역도 있지만 전체적인 학교적응의 신뢰도는 .879로 높은 편이었다. 학교적응 척도의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학교적응 척도 문항 구성과 신뢰도

하위 영역	문항 수	문항 번호	신뢰도
학교 환경 적응	5	1, 2, 3, 4, 5,	.749
학교 교사 적응	5	6, 7, 8, 9, 10,	.787
학교 수업 적응	5	11, 12, 13, 14, 15,	.585
학교 친구 적응	5	16, 17, 18, 19, 20,	.675
학교 생활 적응	5	21, 22, 23, 24, 25	.666
전 체	25		.879

### 3. 연구 절차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시각장애학생의 시력정도를 고려하여 맹학생에게는 점자를, 저시력학생에게는 18포인트 확대 목자로 제작하여 각 학교에 배부하였다. 설문은 연구자에게서 설문조사 요령 및 유의사항에 대해 미리 설명을 들은 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에 의해 2006년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되었다.

전국맹학교에 배부한 점자·묵자 설문지 300부 가운데 회수된 설문지는 총 268부로 회수율 89.3%였다. 그 중에서 자료 처리에 부적절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설문지는 262부였다.

####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처리는 PC용 통계처리 프로그램인 SPSS Windows(Version 10.0 한글)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 대상의 각 배경 변인의 스트레스 검사와 학교적응 검사의 각 하위 영역별로 얻은 원점수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둘째, 연구 대상의 배경 변인에 따라 스트레스 검사와 학교적응 검사의 하위 요인별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연구 대상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과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 III. 연구 결과 및 고찰

본 연구에서 시각장애학생의 성별, 학교급별,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시각장애 정도별, 거주 형태별의 배경 변인과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검사의 각 5개 하위 요인별로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석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일반적 경향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에 대한 전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아래 표 III.1과 같다.

<표 III.1>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 순위

하위 요인	M	SD	순위
가족 관련 스트레스	2.64	.85	4
학교 관련 스트레스	3.17	.90	2
친구 관련 스트레스	2.57	.87	5
본인 관련 스트레스	2.80	.86	3
사회 관련 스트레스	3.24	.96	1
전체	2.89	.70	

스트레스 검사는 전체 5개 하위 요인의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각 문항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은 것이다. 표 III.1과 같이, 연구 결과에 나타난 시각장애학생의 전체 평균 점수는 2.89점으로 각 문항 5점을 만점으로 보면 중간 점수(3점)보다는 약간 낮은 정도이다.

하위 요인별로 보면, 사회 관련하여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다음으로는 학교 관련, 본인 관련, 가족 관련 순이며, 친구 관련이 가장 적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 환경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박순영(1998)의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김종진(2001)의 연구에서 학교와 사회 관련 스트레스는 높게 나타난 반면에 가족과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낮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따라서 사회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은 시각장애학생들이 장애로 인하여 사회생활 등에서 겪는 장애로 인한 차별, 입시제도, 현재의 정치와 경제 상황에 대해 스트레스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가장 낮은 것은 친구는 이성이든 동성이든 같은 또래의 동질집단으로서 함께 친하게 생활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2.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스트레스 분석

### 1) 성별 스트레스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즉 시각장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 성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성별	N	M	SD	F	Sig
가족 관련 스트레스	남학생	155	2.60	.87	.919	.339
	여학생	107	2.70	.83		
학교 관련 스트레스	남학생	155	3.07	.90	.803	.028*
	여학생	107	3.31	.89		
친구 관련 스트레스	남학생	155	2.53	.87	1.027	.312
	여학생	107	2.64	.88		
본인 관련 스트레스	남학생	155	2.78	.89	.406	.524
	여학생	107	2.84	.81		
사회 관련 스트레스	남학생	155	3.24	.96	.016	.899
	여학생	107	3.25	.96		
전체	남학생	155	2.84	.72	1.534	.217
	여학생	107	2.95	.68		

\*p<.05

위의 표 III.2의 분석 결과를 보면, 성별 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남학생은 평균 2.84점, 여학생은 평균 2.95점으로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 남학생이 평균 3.07점, 여학생이 3.31점으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높게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남녀학생 간의 별 다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박순영(1998), 박중기(1998), 김수영(2000), 김종진(2001), 김길자(2004)의 연구와 일치하며, 윤지순(2002)의 성별에 따른 남녀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장애와 관계없이 중·고등학생 시기에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빨리 성숙하는 시기이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경쟁관계가 남학생보다 심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2) 학교급별 스트레스 차이

시각장애 중·고등학생 간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III.3과 같다.

<표 III.3> 학교급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학교급별	N	M	SD	F	Sig
가족 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95	2.67	.87	.227	.634
	고등학생	167	2.69	.84		
학교 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95	3.10	.85	.872	.351
	고등학생	167	3.21	.93		
친구 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95	2.46	.79	2.513	.114
	고등학생	167	2.64	.91		
본인 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95	2.73	.81	1.041	.309
	고등학생	167	2.84	.89		
사회 관련 스트레스	중학생	95	3.13	.94	1.921	.167
	고등학생	167	3.30	.96		
전체	중학생	95	2.82	.63	1.306	.254
	고등학생	167	2.92	.74		

표 III.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급별 간의 스트레스 전체 평균 점수는 중학생이 2.82점, 고등학생이 2.92점으로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중학생에 비해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시각장애학생의 학교급별 간에는 스트레스의 수준 차이가 없다.

이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년 간의 차이가 없는 김종진(2001)과 이수경(2005)의 결과와 일치하며, 반면에 학년이 높을수록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난 형희경(1999), 김수영(2000)과 김길자(2004)의 연구와는 배치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3)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스트레스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발생 시기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즉 선천성 시각장애학생과 후천성 시각장애학생 간의 스트레스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4와 같다.

<표 III.4>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발생 시기	N	M	SD	F	Sig
가족 관련 스트레스	선천성	149	2.68	.87	.649	.421
	후천성	113	2.59	.82		
학교 관련 스트레스	선천성	149	3.22	.86	1.351	.246
	후천성	113	3.09	.96		
친구 관련 스트레스	선천성	149	2.58	.85	.011	.916
	후천성	113	2.57	.91		
본인 관련 스트레스	선천성	149	2.81	.81	.026	.871
	후천성	113	2.79	.92		
사회 관련 스트레스	선천성	149	3.29	.96	.138	.711
	후천성	113	3.27	.96		
전체	선천성	149	2.90	.67	.209	.648
	후천성	113	2.86	.74		

표 III.4에서와 같이,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간의 스트레스 전체 평균 점수는 선천성이 2.90점, 후천성이 2.86점으로 선천성 시각장애학생이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선천성이 후천성에 비해 스트레스 정도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위의 결과를 보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과 후천성 시각장애학생 간에는 스트레스 정도의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 4) 시각장애 정도별 스트레스 차이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의 하위 요인별 스트레스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5와 같다.

<표 III.5> 시각장애 정도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장애 정도	N	M	SD	F	Sig
가족 관련 스트레스	맹	113	2.63	.89	.005	.941
	저시력	149	2.64	.82		
학교 관련 스트레스	맹	113	3.23	.89	1.102	.295
	저시력	149	3.12	.91		
친구 관련 스트레스	맹	113	2.50	.83	1.39	.239
	저시력	149	2.63	.90		
본인 관련 스트레스	맹	113	2.82	.83	.061	.804
	저시력	149	2.79	.88		
사회 관련 스트레스	맹	113	3.30	.93	.685	.409
	저시력	149	3.20	.98		
전체	맹	113	2.90	.66	.06	.807
	저시력	149	2.90	.73		

표 III.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하위 요인별 스트레스의 전체 평균 점수는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모두 2.90점으로 양 집단 간의 차이 없이 동점으로 나타났다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또한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양 집단 간의 서로 근소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결과적으로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에는 스트레스 수준의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거주 형태별 스트레스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6과 같다.

표 III.6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 간의 스트레스 정도는 전체적으로 기숙사 거주 학생은 평균 2.87점, 자택 거주 학생은 평균 2.91점으로 기숙사 학생에 비해 자택 학생이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 기숙사 거주 학생이 평균 3.21점, 자택 거주 학생이 3.07점으로 기숙사 학생이 자택 학생보다 더 높게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거주 형태에 따른 스트레스의 정도는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숙사생과 자택생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 중,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 기숙사 학생이 자택 학생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6> 거주 형태별 스트레스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거주 형태	N	M	SD	F	Sig
가족 관련 스트레스	기숙사	155	2.61	.84	.507	.477
	자택	107	2.68	.86		
학교 관련 스트레스	기숙사	155	3.21	.81	1.015	.015*
	자택	107	3.07	1.02		
친구 관련 스트레스	기숙사	155	2.54	.85	5.25	.469
	자택	107	2.62	.91		
본인 관련 스트레스	기숙사	155	2.78	.83	.376	.540
	자택	107	2.84	.90		
사회 관련 스트레스	기숙사	155	3.19	.90	1.191	.276
	자택	107	3.32	1.04		
전체	기숙사	155	2.87	.66	.292	.590
	자택	107	2.91	.77		

\*p<.05

이러한 결과는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종진(2001)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전국의 12개 시각장애학교가 모두 도심지에 소재하고 있어서 지방 거주의 시각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숙사 시설이 모두 완비되어 있다. 따라서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가정을 떠나 틀에 박힌 학교와 기숙사의 공동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내적 갈등이 스트레스를 많이 유발 시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 3.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일반적 경향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일반적인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7과 같다.

<표 III.7>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 순위

하위 요인	M	SD	순위
학교 환경 적응	3.11	.79	3
학교 교사 적응	3.35	.82	2
학교 수업 적응	2.85	.68	5
학교 친구 적응	2.89	.73	4
학교 생활 적응	3.37	.70	1
전체	3.11	.56	

본 연구의 학교적응 척도는 전체 5개 하위 요인의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문항 5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표 III.7

의 산출 결과에 나타난 전체 평균 점수는 3.11점으로 각 문항 5점을 만점으로 보면 중간 점수(3점)보다는 약간 높은 정도이다.

세부적인 하위 요인별로 보면, 학교 생활 적응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학교 교사 적응, 학교 환경 적응, 학교 친구 적응 순이며, 학교 수업 적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학교 생활 적응이 높게 나타난 김종진(2001)과 배진화(2003)의 결과와 일치하며, 반면에 이들의 연구에서 학교 환경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우리나라 일반학교와 그 주변의 환경이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안정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학교 수업 적응이 가장 낮게 나타난 것은 시각장애로 인한 학습의 특성상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이나 연습과 복습을 위한 점자 참고서 부족 등으로 적절한 수업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4. 시각장애학생의 배경 변인에 따른 학교적응 분석

##### 1) 성별 학교적응 차이

시각장애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의 표 III.8과 같다.

<표 III.8> 성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성별	N	M	SD	F	Sig
학교 환경 적응	남학생	155	3.08	.79	.334	.564
	여학생	107	3.14	.80		
학교 교사 적응	남학생	155	3.33	.85	.174	.677
	여학생	107	3.37	.77		
학교 수업 적응	남학생	155	2.87	.65	.304	.582
	여학생	107	2.83	.74		
학교 친구 적응	남학생	155	2.90	.73	.04	.841
	여학생	107	2.88	.73		
학교 생활 적응	남학생	155	3.32	.73	1.956	.163
	여학생	107	3.45	.65		
전체	남학생	155	3.10	.56	.201	.655
	여학생	107	3.13	.55		

위의 표 III.8에서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 점수는 남학생이 3.10점, 여학생이 3.1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남녀학생 모두 학교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근소하게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남학생과 여학생 간의 학교적응에 대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정유진, 2000; 주현정, 1998; 배진화, 2003)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김종진, 2001; 이수경, 2005; 장우민, 2004; 현희순·김양순, 1999)과는 배치되지만, 학교적응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문정현(2002)과 채승희(2004)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

2) 학교급별 학교적응 차이

시각장애 중·고등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표 III.9와 같다.

<표 III.9> 학교급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학교급별	N	M	SD	F	Sig
학교 환경 적응	중학생	95	3.31	.77	10.386	.001***
	고등학생	167	2.99	.78		
학교 교사 적응	중학생	95	3.36	.81	.054	.817
	고등학생	167	3.34	.83		
학교 수업 적응	중학생	95	3.00	.70	7.169	.008**
	고등학생	167	2.77	.65		
학교 친구 적응	중학생	95	2.92	.78	.172	.679
	고등학생	167	2.88	.70		
학교 생활 적응	중학생	95	3.48	.63	3.584	.059
	고등학생	167	3.31	.73		
전체	중학생	95	3.22	.55	4.875	.028*
	고등학생	167	3.06	.56		

\*p<.05 \*\*p<.01 \*\*\*p<.001

위의 표 III.9의 분석 결과를 보면,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 점수는 중학생이 3.22점, 고등학생이 3.06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적응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면, 학교 환경 적응에서 중학생의 평균이 3.31점, 고등학생의 평균이 2.99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통계적으로 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학교 수업 적응에서도 중학생의 평균이 3.00점, 고등학생의 평균이 2.77점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게 통계적으로 1%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이외 다른 하위 요인인 학교 교사 적응, 학교 친구 적응, 학교 생활 적응에서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가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학교급별에 따른 학교적응은 전체적으로 볼 때,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 하며, 학교 환경 적응과 학교 수업 적응도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높을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한다는 연구결과들(김종진, 2001; 유윤희, 1994; 장우민, 2004)과 학년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들(박영란, 2003; 박지현, 2003; 이수경, 2005)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선행 연구와 본 연구의 배치되는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학교적응에 대한 학교급별 간의 결과가 일관되게 지지 받지 못하고 있음은 각 연구들의 대상, 지역, 표집방법의 차이 등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3)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학교적응 차이**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선천성과 후천성 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0과 같다.

<표 III.10> 시각장애 발생 시기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발생 시기	N	M	SD	F	Sig
학교 환경 적응	선천성	149	3.09	.79	.100	.752
	후천성	113	3.12	.80		
학교 교사 적응	선천성	149	3.26	.85	3.522	.062
	후천성	113	3.45	.76		
학교 수업 적응	선천성	149	2.88	.66	.414	.520
	후천성	113	2.82	.72		
학교 친구 적응	선천성	149	2.87	.70	.487	.486
	후천성	113	2.93	.77		
학교 생활 적응	선천성	149	3.38	.61	.036	.850
	후천성	113	3.36	.80		
전체	선천성	149	3.10	.54	.375	.541
	후천성	113	3.14	.59		

표 III.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 점수는 선천성이 3.10점, 후천성이 3.14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후천성 시각장애학생이 선천성 시각장애학생보다 근소하게 학교적응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각장애 발생 시기에 따른 학교적응의 모든 하위 요인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선천성과 후천성 시각장애학생 간의 학교적응에

대한 별다른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4) 시각장애 정도별 학교적응 차이**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1과 같다.

<표 III.11> 시각장애 정도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장애 정도	N	M	SD	F	Sig
학교 환경 적응	맹	113	3.24	.81	5.842	.016*
	저시력	149	3.00	.77		
학교 교사 적응	맹	113	3.32	.85	.204	.652
	저시력	149	3.37	.79		
학교 수업 적응	맹	113	2.91	.66	1.318	.252
	저시력	149	2.81	.70		
학교 친구 적응	맹	113	2.94	.77	.817	.367
	저시력	149	2.86	.69		
학교 생활 적응	맹	113	3.39	.69	.056	.813
	저시력	149	3.37	.71		
전체	맹	113	3.16	.60	1.26	.263
	저시력	149	3.08	.53		

\*p<.05

위의 표 III.11의 결과를 보면,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 점수는 맹학생이 3.16점, 저시력학생이 3.08점으로 맹학생이 저시력학생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인의 학교 환경 적응에서는 맹학생이 3.24점, 저시력학생이 3.00점으로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학교적응은 전체적으로 볼 때, 맹학생과 저시력학생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 중, 학교 환경 적응에서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맹학생이 저시력학생에 비해 좋은 학교 환경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또한 학교 환경이 공부하는 곳으로서 쾌적하고 본인의 정서 안정에도 도움을 주며, 학교의 주변 환경에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거주 형태별 학교적응 차이**

시각장애학생의 거주 형태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차이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

의 표 III.12와 같다.

<표 III.12> 거주 형태별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 비교

하위 요인	거주 형태	N	M	SD	F	Sig
학교 환경 적응	기숙사	155	3.03	.78	3.943	.048*
	자택	107	3.22	.80		
학교 교사 적응	기숙사	155	3.28	.83	2.838	.093
	자택	107	3.45	.79		
학교 수업 적응	기숙사	155	2.82	.67	.918	.339
	자택	107	2.90	.71		
학교 친구 적응	기숙사	155	2.84	.68	2.234	.136
	자택	107	2.97	.79		
학교 생활 적응	기숙사	155	3.35	.69	.411	.522
	자택	107	3.41	.71		
전체	기숙사	155	3.06	.55	3.394	.067
	자택	107	3.19	.57		

\*p<.05

위의 표 III.12에서와 같이, 시각장애학생의 기숙사 거주 학생과 자택 거주 학생 간의 학교적응의 전체 평균 점수는 기숙사 학생이 3.06점, 자택 학생이 3.19점으로 자택 학생이 기숙사 학생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하위 요인의 학교 환경 적응에서는 기숙사 학생이 3.03점, 자택 학생이 3.22점으로 자택 학생이 기숙사 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시각장애 정도에 따른 학교적응은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숙사 학생과 자택 학생 간에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 중, 학교 환경 적응에서 자택 학생이 기숙사 학생보다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5. 시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 분석

시각장애 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III.13과 같다.

<표 III.13>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상관 분석

하위 요인	가족 관련 스트레스	학교 관련 스트레스	친구 관련 스트레스	본인 관련 스트레스	사회 관련 스트레스	스트레스 전체
학교 환경 적응	-.100	-.167**	-.178**	-.100	-.144*	-.175**
학교 교사 적응	-.066	-.046	.022	-.085	.011	-.040
학교 수업 적응	-.098	-.111	-.074	-.130*	-.063	-.119
학교 친구 적응	-.069	-.134*	-.020	-.030	-.050	-.077
학교 생활 적응	-.079	-.058	.014	-.088	-.060	-.069
학교적응 전체	-.109	-.137*	-.064	-.115	-.081	-.128*

\*p<.05 \*\*p<.01

위의 표 III.13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적관계(-.128)가 나타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이는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하위 요인별로 스트레스 요인에서는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부적관계(-.137)가 나타났고, 학교적응에서는 학교 환경 적응에서 부적관계(-.175)가 나타났을 뿐 다른 하위 요인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은 낮으며, 학교 환경 적응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의 5개 하위 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의 하위 요인별로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먼저 가족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 학교적응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학교 환경 적응(-.167)과 학교 친구 적응(-.134)에서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것은 학교 관련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환경 적응, 학교 친구 적응에서 낮은 점수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친구 관련 스트레스의 경우에는 다른 하위 요인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지만, 학교 환경 적응(-.178)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친구 관련에 대한 스트레스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 환경 적응의 점수가 낮다는 것이다. 또한 본인 관련 스트레스도 학교 수업 적응(-.130)에만 부적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것은 본인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 수업 적응이 낮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 관련에 대한 스트레스는 학교 환경 적응(-.144)에 대해서 부적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사회 관련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 환경 적응이 낮다는 것이다.

## IV. 결론 및 제언

### 1. 결론

본 연구는 전국맹학교 중·고등부 시각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적응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적응하기 위한 지도 자료를 제공하고자, 이들의 스트레스 정도와 학교적응에 대해 하위 요인별로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수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은 사회 관련 스트레스, 학교 관련 스트레스, 본인 관련 스트레스, 가족 관련 스트레스, 친구관련 스트레스 순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둘째, 시각장애학생의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이 받고, 기숙사 학생이 자택 학생보다 더 많이 받고 있다.

셋째, 시각장애학생의 학교적응은 학교 생활 적응, 학교 교사 적응, 학교 환경 적응, 학교 친구 적응, 학교 수업 적응 순으로 높다.

넷째, 전반적으로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학교적응을 더 잘하며, 학교 환경 적응과 학교 수업 적응도 더 잘 한다. 또한 맹학생이 저시력학생보다 학교 환경 적응을 더 잘 하며, 자택 학생이 기숙사 학생보다 학교 환경 적응을 더 잘한다.

다섯째, 시각장애학생은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적응이 낮다. 그리고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 환경 적응, 학교 친구 적응에서 낮고, 친구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 환경 적응이 낮다. 또한 본인 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 수업 적응이 낮으며, 사회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학교 환경 적응이 낮다.

### 2. 제언

본 연구의 수행된 결과에서 시각장애학생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는 학교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높일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른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개선된 후속 연구를 위해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법 개발을 위해 시각장애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의 사이에 영향을 주는 대처 방식 이외에도 개인적, 환경적인 요인 등의 새로운 변수를 포함한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스트레스 대처 방식의 이론적인 기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시각장애학생의 다양한 스트레스 원인의 확인을 통하여 이를 적절히 완화시켜서 학교적응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참고문헌

- 김동연(1991). **시각손상아의 지도**. 대구: 동아문화사.
- 국립특수교육원(1999). **특수교육 요구아동 출현율 조사**. 경기: 국립특수교육원.
- 김길자(2004).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수영(2000).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용래(1993). 학업성취에 대한 기여 변인의 영향력 분석.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 김종진(2001). 고등학교 기숙사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춘희(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과 관계.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정현(202). 어머니의 직업유무에 따른 아동의 심리 사회적 적응과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박순영(1998).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양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영란(2003).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중기(1998).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지현(2003).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배진화(2003). 고등학생들의 학교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윤미경(1997).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과 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윤지순(2002). 빈곤가정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희(1995).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수경(2005). 학교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우민(2004). 청소년의 감각추구 성향과 학교적응 및 인터넷 중독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정복순(2003). 초등학생들의 스트레스 요인과 학교적응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대학원.
- 정유진(2000). 청소년 학교생활적응의 관련 변인.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채승희(2004). 교사-학생 의사소통유형과 학생의 대인관계 성향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 한준상(1995). **학교스트레스**. 서울: 연세대학교출판부.
- 현희순·김양순(1999). 청소년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제주시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1), 249-262.
- 형희경(1999). 중학생들이 지각하는 학교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Warren, D. H.(1984). *Blindness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2nd ed.); N. Y.: AFB, Inc.

## The Stress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nd the Relation of School Adjustment

Lee, Hae Gyun  
Daegu University

### <Abstract>

This study intended for the 262 visually impaired students in middle school and senior high school all over the country, carried out survey and are analyzed.

The summary are as follows. First,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re more under the stress related with the elements of society, school, self, family and friends in turn. Girl students are more under stress than boy students. And students living in the dormitory are more under stress than those living in home.

Second, in the rank of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it appeared that, first, adjustment to school life is highest, second, to school teachers, third, to the environment of school and, finally to the school friend. Overall it appeared that the middle school students are better adjusted to school than the senior high school students and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are better adjusted to school life than low vision students, and the students living in home better adapted to school than those living in dormitory.

Third, it appeared that, is the higher stress for the visually handicapped students, the lower the adjustment to school is.

**Key Words** : the Visually Impaired Students, Stress, School Adjustment

---

논문 접수: 2007. 2. 13    심사 시작: 2007. 2. 20    게재 확정: 2007. 3. 23